

Colombo Plan

김태형* / Colombo Plan 민간부문개발프로그램 과장 (Director, Program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I. 시작하는 말

콜롬보플랜은 세계에서 UN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부간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콜롬보플랜이라는 명칭에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콜롬보라는 이름은 이 기구가 스리랑카 콜롬보의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며 플랜이라는 명칭도 한시적이며 도시개발 계획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사실 콜롬보플랜은 유엔이 설립되고 난 지 몇 개월후에 설립되었으며 양자간 협력(Bilateral Aid)이 활성화되기 전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회원국 국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했던 기구이다.

모쪼록 이번 소개글을 통해 콜롬보플랜이라는 국제

기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II. 콜롬보플랜 개요

1. 콜롬보플랜이란

Colombo Plan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만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동 국제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로서 그 정식 명칭은 *The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아태 경제사회개발 계획)¹⁾이며 일반적인

*필자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04년 9월-2006년 8월간 콜롬보플랜에 파견되어 근무중임.

1) 1977년 12월 선언장을 채택, 개명.

로 Colombo Plan 이라 줄여서 불리운다.

2. 콜롬보플랜의 역사

Colombo Plan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Marshall Plan이 처음 유럽에 실시될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등 영연방국가들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유럽경제 부흥계획인 Marshall Plan을 모방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공산주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Colombo Plan²⁾을 설립하였다.

Marshall Plan

전후 1945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은 유럽경제의 부흥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무역을 촉진하는 반면, 공산주의 같은 급진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유럽에 약 90억달러의 有, 無償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유럽은 여전히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렸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산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원조계획 수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미국의 Marshall 국무장관은 유럽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확대 저지와 유럽 경제부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무성에 유럽의 경제부흥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을 지시했고 여기서 1947년 봄, 마셜플랜이 나타나게 된다.

Marshall Plan의 성공에 기인하여 1950년 1월, 8개국 영연방 외무장관³⁾들은 스리랑카⁴⁾ 콜롬보에서 아시아 최초의 영연방 외무장관 회의를 갖고 남아시아 및 남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아시아판 마셜플랜을 추진하기로 기본적 합의를 하였다.

그후 1950년 5월, Australia Sydney와 1950년 9월, England에서의 총회(Consultative Committee)⁵⁾를 통해 1951년 7월 영연방 7개국은 18억 6천만 파운드의 기금을 모아 6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정식으로 콜롬보플랜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콜롬보플랜은 처음부터 국제기구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설립 당시에는 기한이 정해진 개발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국제기구화 되었다. 그 후 총회에서 5년 시한으로 계속 콜롬보플랜의 활동이 연장되었으며 마침내 1980년 11월 자카르타 총회에서 콜롬보플랜 활동을 항구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콜롬보플랜 회원국은 발족 당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7개국이며, 현재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6개국⁶⁾으로 확대되었고 IBRD와 UNDP 등의 국제기관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2) 콜롬보플랜이라는 명칭은 최초의 7개국 영연방 대표 중 스리랑카 대표 JR. Jayawardene와 호주의 대표 Percy Spender가 각각 본인의 이름을 딴 Jayawardene Plan과 Spender Plan의 이름을 주장했기에 절충안으로 Colombo Plan으로 부르기로 합의함.

3) 캐나다,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영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4) 당시에는 국명이 실론.

5) Colombo Plan was conceived in Colombo, nurtured in Australia and born in London.

6) Afghanistan, Australia, Bangladesh, Bhutan, Cambodia, Fiji, India, Indonesia, Iran, Japan, Korea, Laos, Malaysia, Maldives, Mongolia, Myanmar, Nepal, New Zealand,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USA, Vietnam.

최초 회원국이던 영국과 캐나다⁷⁾는 1991년 콜롬보플랜을 탈퇴하였다.

3. 콜롬보플랜의 설립 목적

동 기구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립과 상호 협력을 통해 동 국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 회원국 간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이전을 지원하며
- 회원국, 다자간기구 및 다른 기관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제공하며
- 남남협력의 이념 하에 지역 내 회원국 간의 개발 경험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4. 콜롬보플랜의 구성

콜롬보플랜은 총회(Colombo Plan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CCM)와 이사회(Colombo Plan Council), 그리고 콜롬보플랜 사무국(Colombo Plan 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총회(CCM)는 회원국 고위실무자(대사 또는 국장급)들로 구성되며 매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기술협력 활동 결과, 각국의 개발경

험 및 의견교환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콜롬보플랜 이사회는 스리랑카에 주재하는 중요한 모든 회원국 대표(주로 대사)로 구성되며 중요한 개발 이슈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총회 권고사항의 추진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콜롬보플랜 사무국은 스리랑카의 Colombo에 소재하고 있는데 Consultative Committee와 Council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발경험 및 기술 공유 등을 위해 콜롬보플랜 연수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5. 콜롬보플랜 예산

콜롬보플랜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재원은 각 회원국의 정기회비와 회원국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대별된다. 회원국 회비는 각국이 균등하게 1년에 US\$14,500로써 Council과 사무국(Secretariat) 행정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수프로그램 재원은 회원국, 비회원국, 다른 국제기구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콜롬보플랜의 연수프로그램은 주로 선진회원국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으며 회원국이 기부하겠다고 선언(pledge)하는 시기와 기부금이 실제로 콜롬보플랜으로 입금되는 시기에 시차가 있으므로 비록 계획을 수립했다 해도 실제적으로 기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계획보다 뒤늦게 전달되면 연

7) 영국과 캐나다는 1991년 콜롬보플랜이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이제 국제무대에서 명예롭게 은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콜롬보플랜을 탈퇴하였음. 이에 자극을 받아 다른 회원국들은 일본의 제안에 따라 1994년 서울총회를 통해 콜롬보플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작업(Revitalization)을 시작하였음.

수계획이 뒤로 늦추어지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Ⅲ. 콜롬보플랜의 주요 사업

콜롬보플랜은 현재 4개의 주요 프로그램과 비정기적 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개의 프로그램은 콜롬보플랜 사무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은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다.

1. 공공행정사업(Programme for Public Administration, PPA)

1995년 일본 정부⁸⁾의 기금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화(Globalization) 및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행정 및 행정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로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요 자금 제공 국가는 일본으로 Japan division으로도 불린다.

현재 PPA는 주로 공공행정 분야 중 거시경제관리, 빈곤퇴치, 환경, 생산성향상, e-government 등의 분야에 집중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APO⁹⁾와의 공동연수 7건을 포함,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협력하여 15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2. 민간개발협력프로그램(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PPSD)

민간부문의 발전이 국가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1995년 한국 정부가 50만 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부문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이나 상공회의소 직원 및 중소기업 고위실무자를 대상으로 Business management, Finance, Marketing technology, e-commerce, Regional cooperation 분야를 집중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자금제공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및 OPEC Fund이며 동 프로그램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음을 고려하여 일명 Korean division이라 불린다. 2005년에는 APO와의 공동연수 2건을 포함 총 9건의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3. 마약프로그램(Drug Advisory Programme, DAP)

콜롬보플랜의 가장 오래된 연수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재정 지원으로 1973년 시작되었으며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의 생산방지, 마약 남용방지 및 통제, 마약 치료 등을 위한 워크샵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 일본은 1954년 콜롬보플랜 가입을 계기로 ODA를 시작한다.

9)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아시아 생산성 본부). 일본에 사무국을 두고 1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국의 마약담당 공무원 및 NGO를 대상으로 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이 주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일명 USA division으로 불리운다

DAP은 현재 마약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마약 근절 지원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니, 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마약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4. 콜롬보기술교육대학(Colombo Plan Staff College for Technician Education, CPSC)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CPSC)은 1973년 Colombo Plan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직업기술교육 체제개발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 직업기술교육 및 연구기관이다. CPSC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들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체제 개발 및 직업기술 교육/훈련 담당자들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CPSC는 콜롬보플랜 사무국과 별도의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18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974년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 피지,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이다.

현재 CPSC가 콜롬보플랜의 이사회와는 별도의 이사회 및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명료한 관계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CPSC 주재국인 필리핀 정부는 다른 회원국이 CPSC를 유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IV. 콜롬보플랜의 문제점

1. 콜롬보플랜 역할 축소

콜롬보플랜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각 원조국들이 자신들의 원조기관 설립에 따른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 확대, 그리고 범세계적 특별기구(Special Agency)의 설립 등으로 60~70년대에 비해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콜롬보플랜의 역할 및 활동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4년, 전문가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이 구성되어 콜롬보플랜의 활동에 대한 Reorientation이 제시되었다. EPG 그룹이 제안한 대안은 대략 2가지로 ① 회원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정규적인 연수프로그램의 실시와 ② Project-based 훈련프로그램 제공에 콜롬보플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2. 안정적 사업예산의 확보 필요성

콜롬보플랜이 EPG 그룹이 제안한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현재로서는 정기적인 회비는 Council과 사무국 행정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 예산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소수의 원조국에 의한 자발적인 현금지원으로 연수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나 이는 불안정적인 재원조달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식 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없이는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나 기술협

력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콜롬보플랜 헌법 개정을 통한 사업비 회비 신설이나 회비에서의 사업비로의 일정부분의 전용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개도국의 개발경험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개발경험과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나 회원국 중 저개발국의 경우, 정보통신설비(ICT Facility)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유가 어려운 형편이다. 아울러 정보 공유의 중심 (clearing house)이 되어야 할 콜롬보플랜 사무국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Infrastrue) 자체도 열악한 실정인 바, 이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연수분야 및 대상자의 구체화

콜롬보플랜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아태 지역에서 활동 중인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UNESC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을 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워크숍 및 세미나는 주로 5일 이내-주로 각 회원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단기 workshop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고위정책자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이 실제적으로 국가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개발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콜롬보플랜은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일부터 1년간의 장기적인 기술 이전을 목표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을 위한 정책적 workshop도 필요하지만 중견 공무원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도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콜롬보플랜은 중장기 연수프로그램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V. 콜롬보플랜의 특징

1. 남남협력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란 간단히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말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 종래처럼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선진국의 자본·지식집약적인 기술보다는 오히려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노동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도국 간의 협력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의 특성, 개도국 간의 경제적 격차, 그리고 국제화 시대를 고려할 때, 남남협력은 이미 적합한 용어가 아니며 오히려 Grouping 형태로 추진되는 세부지역차원 접근법(sub-regional approach)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개도국들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남남협력의 취지는 지금도 그 의미가 퇴색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콜롬보플랜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및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지향하는 소수의 국제기구 중 하나이며 UN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이다. 콜롬보플랜이 남남협력을 주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 원조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실제로 개도국에 도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원조가 도달할 시점에서는 환경이 변화되어 적합하지 않은 기술 원조 등이 지원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가 커서 실제로 수원국에 전달되는 기술이 개도국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많다. 셋째, 선발개도국의 개발경험 및 기술이 후발 개도국의 수준에 더욱 도움이 된다. 넷째, 선진국이 원조제공시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아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기술수준이 비슷한 선진개도국과 후발개도국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콜롬보플랜이 남남협력을 주창하는 이유이다.¹⁰⁾

현재 남남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콜롬보플랜

의 주요 연수파트너국은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란으로 인도의 경우, 콜롬보플랜 새천년 기금(Millennium Fund for Colombo Plan)을 만들어서 콜롬보플랜의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싱가포르 외무부, 태국의 TICA¹¹⁾, 말레이시아 EPU¹²⁾ 등도 주요 협력파트너이다. 이러한 남남협력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수원-공여국(Recipient-Donor Countries, RDCs)¹³⁾ 출현을 유도하여 일방적이 아닌 상호 협력하는 원조라는 새로운 방식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작고 유연한 조직규모

콜롬보플랜의 활동은 자립정신에 의해 기본적으로 회원국 정부가 콜롬보플랜의 연수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사무국은 기술협력 및 정보확산 등의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는 사무국을 둔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사무국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금의 성격 및 일반적 목적을 고려시, 분권화된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결과와 행정 유연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동 플랜의 초기설립자(founding leader)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다자적 틀(multilateral framework) 내에서 회원 간의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 형태로 상부상조하는 독특한 지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0)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해서는 각 개도국이 이미 기술수준, 경제수준, 사회적 수준이 다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11) Thai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DTEC의 후신).

12) Economic Planning Unit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in Malaysia.

13) 한쪽으로는 원조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 열악한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국가군을 의미하여 태국,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 선진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3. 비용효과적(Cost-Effective) 사업추진

콜롬보플랜은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주최국의 주인식(ownership)을 강조하기 위하여 콜롬보플랜의 연수프로그램을 연수 주최국과 공동비용 부담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상 콜롬보플랜이 연수생의 항공료와 일비(DSA)¹⁴⁾를 부담하고 연수 주최국인 회원국은 숙박, 식사, 강의 등의 Local host expenses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비용 방식을 통해 개도국이 인근 개도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유사한 개발경험 및 기술을 공유하며 주인식을 고취함으로써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효과적인 사업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4. 시너지 효과 제고(Synergy of Similarly Placed Institution)

콜롬보플랜은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콜롬보플랜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사업중복을 지양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개발경험과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협력관계가 APO 및 UNESCAP,¹⁵⁾ ADB 등과의 협력이다.

- 콜롬보플랜은 2004년 APO와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05년 9개 사업에 대해 공동비용

부담으로 공동 연수를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 아울러 콜롬보플랜과 UNESCAP은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2건 정도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UNESCAP에서 콜롬보플랜의 연수에 Resource person¹⁶⁾을 파견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 6월 중국 북경에서 Workshop on Post Multi-Fiber Arrangement를 공동 비용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5. 우수기관 간의 연계강화(Linking Centers of Excellence)

콜롬보플랜은 아태지역에서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양자적 기술협력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데, 선발개도국의 우수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 후발개도국의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6. 민간부문의 지원 강화(Importance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많은 원조국과 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 콜롬보플랜은 1995년 민간부문개발프로그램(Program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14) DSA: Daily Subsistence Allowance

15)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U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16) Resource person이란 연수강의에서 전통적 의미의 Instructor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상호 토론 형태의 연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Instructor가 아닌 Resource person이라고 대체하여 부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콜롬보플랜 사무국내에 설립,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실질적 발전을 통한 개도국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들의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연수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VI. 한국과의 협력관계

1. 가입

한국은 1962년 콜롬보플랜 회원국으로 가입을 신청, 1963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이는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반공정책 및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2. 참여 및 지원 현황(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 참조)

- '94. 10. 26-28 제35차 총회 서울 개최
- 사무총장으로 김학수 박사 선출('95. 1-99. 1)
- KOICA 직원 3명, 콜롬보플랜 사무국에 파견
- 117만 불 상당의 현금지원 및 연수생초청, 전문과파견 지원

3. 한국의 콜롬보플랜 활용방안

90년대 이후 콜롬보플랜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콜롬보플랜의 활동이나 기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콜롬보플랜은 나름대로의 존재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회원국 대부분이 개도국으로 선진 개도국이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남남협력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수원국의 현실에 적합한 보다 현실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주인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부간 기구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선발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고 아태지역의 많은 개도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자신들에게 보다 적합한 한국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어, 한국은 콜롬보플랜을 통한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원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이 UN 사무총장 선출 등 국제정치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콜롬보플랜에 참여하여 도덕적 국가, 기술 우위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회원국당 회비가 US\$14,500/1년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아태지역 정부간 기구인 APO(1년 회비 : 약 US\$900,000)에 비해 비용 효율적(Cost-effective)인 것을 감안해도 현재 콜롬보플랜에 대한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한국의 역할을 조금 더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VII. 맺음말(콜롬보플랜의 나아갈 방향)

콜롬보플랜은 양자간 원조의 출현 및 전문 국제기구의 등장 등으로 인한 그 역할과 활동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남남협력의 전형적인 정부간 국제기구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아태지역 내의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UNESCAP, APO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 간의 경제적차 발생, 세계의 국제화 및 지역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남남협력도 지역주의(regionalism)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남남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역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Colombo Plan은 향후

- 아태지역에서 회원국들이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술이전, 기술협력, 인적자원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 남남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선진 원조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개도국 스스로가 자립하여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성공적인 선진 개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선도적 지역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콜롬보플랜 회원국의 ①인적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②기술협력 강화(Technical Cooperation) ③정보공유 확대(Sharing of Information)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부정기적으로 선진국에 의해 지원되는 원조자금으로 운영되는 연수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예산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둘째, 아태 회원국 간의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나 개도국의 낮은 ICT 수준으로 인하여 기술이전 및 정보 공유가 낮아 콜롬보플랜의 홈페이지 활용 강화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남남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s)의 활동에 주목하고 개도국간(South-South)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 나가야 하며 넷째, 아태지역의 유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사업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동비용 형태로 연수효과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KOICA 對 콜롬보플랜 지원실적

1. 총괄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기 금	1170			70	500			100				200		100	200	
전문가(CPSC)	7	1	1	1	1	1		1	1							
프로젝트	150															150
공동연수	107					1개 29명									2개 33명	3개 45명
직원파견(사무국)	3															

2. 세부내역

가. 기금

- '93 기술자교육대학 (CPSC) 지원금 70천불
- '94 기술협력기금 500천불
- '97 기술협력 Databank 구축을 위한 기금 100천불
- '01 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금 200천불
- '03 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금 100천불
- '04 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금 200천불

나. 연수생초청

- '95 1개과정(중소기업 육성과정) 29명
- '04 2개과정(벤처경영과 전자상거래 응용/WTO 협상능력개발) 33명
(각각 15명 / 18명임)

다. 전문가파견

- 콜롬보플랜 기술자대학 (CPSC)에 '91-'98년간 총 7명 파견
- 직업훈련 기술교육 5명, 컴퓨터 2명

라. 사무국지원

- 콜롬보플랜 사무국에 협력단 직원파견
- 안남기(3급): '95.1-'97.5
- 전준호(3급): '97.5-'99.1
- 김태형(4급): '04.9-현재.